

진정한 교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고로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과 표현

1/19 월

시 118:22

22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습니다.

벧전 2:4, 7

4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 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7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벧전 3:4

4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삼상 16:7

7 그러나 여호와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용모나 키의 크기로 평가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거절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나 여호와와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눅 16:15

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입니다.

눅 9:54-56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서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사르라고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하니,

55 예수님께서 돌아서서어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56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시고는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빌 3:7-8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1/20 화

마 10:37-38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38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렘 15:19

19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나 너를 회복시켜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네가 가치 없는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해 내면 네가 나의 입이 되어 그들이 네게로 돌이킬 것이요 네가 그들에게로 돌이키는 일은 없으리라.

막 9:7-8

7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8 그들이 즉시로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고후 2:10

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고후 4:7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벧전 1:8

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1/21 수

막 16:7

7 여러분은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벧후 1:1, 16

1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16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알려 주었는데, 그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한 것입니다.

벤전 3:22

22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사 33:21-22

21 그러나 거기서 위엄 있으신 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과 넓은 시내가 흐르는 곳이 되어 주시리니 노 젓는 배가 그 위로 다니지 못하고 웅장한 배도 지나지 못하리라.

22 여호와와 우리의 심판자 여호와와 우리의 율법 제정자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시 16:5

5 여호와와는 저의 유업과 잔의 몫이시니 주님께서 저의 소득을 지켜 주십니다.

출 19:4-6

4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5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6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 줄 말이다.”

사 5:20

20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어둠을 빛에 두고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쓴 것을 단것에 두고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사 22:1

1 이상의 골짜기에 대한 부담이다. 무슨 일이기에 모두 지붕으로 올라갔느냐?

요 12:38-41

38 이것은 신언자 이사야가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라고 한 말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39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다.

40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41 이러한 말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

애 5:19

19 오, 여호와님!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며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계 22:1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겔 1:22, 26

22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1/23 금

사 6:1-8 (1-5)

1 옷시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2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떠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서 나머지 둘로 날고 있었다.

3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

4 부르는 이의 음성에 문지방의 기초가 흔들렸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다.

5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음이라!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뵈었음이라!”

6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다.

7 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

8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행 2:36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 2:9

9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4 토

단 10:4-9

4 첫째 달 스무나흘날에 나는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다.

6 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분의 눈은 햇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광낸 놋이 빛나는 것 같으며,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7 나 다니엘만 홀로 그 이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큰 공포에 휩싸인 채 도망하여 몸을 숨겼다.

8 그래서 나 홀로 남아 그 큰 이상을 보았다. 내 안에는 아무 힘도 남아 있지 않았고, 내 얼굴색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나는 힘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았다.

9 그렇지만 나는 그분의 말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말소리를 듣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다.

단 9:23

23 그대가 간청을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려져, 내가 그대에게 말해 주려고 온 것은

그대가 보배로움 자체인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이해하고 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10:11, 19

11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이여, 이제 그대에게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서십시오. 나는 그대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하자, 나는 떨면서 일어섰다.

19 그가 말하였다. “보배로운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해지고 또 강해지십시오.” 그가 나에게 말하자, 나는 힘을 얻어 말하였다. “어르신, 제게 힘을 주셨으니 말씀하십시오.”

1/25 주일

벧전 2:1-3, 5-6, 8-9

1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리고,

2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3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5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6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8 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또한 정해진 일입니다.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벧후 3:8, 11-12

8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과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12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녹아 버릴 것입니다.